



「달」사 電 波 와 노 벨 상

1967년 여름, 영국 캠브릿지大学の 電波天文学教授 「휴위쉬」박사댁에 밤늦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늦게까지 서재에서 연구에 골몰하다 막 잠이 들려든 참이었다. “이 늦은 밤중에 누가 전화를 하나” 궁금해 하며 받은 전화속의 목소리는 지금쯤 전파천문대에서 밤을 새며 관측을 하고 있을 「조스린 벨」이라는 대학원 여학생이었다.

“이 밤중에 웬 일이지” 놀래서 묻는 교수에게 “선생님 오늘 참 이상한 전파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계획대로 우리 銀河面에서 나오는 전파의 세기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한 방향에서 마치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신호와 흡사한 아주 규칙적인 전파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신호의 간격이 1초도 되지 않고 또 너무도 규칙적이예요. 그래서 기계에 이상이 있나 하고 찾아보았으나 별 이상이 없는것 같고 또 망원경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다가 다시 신호의 방향으로 맞추어도 보았는데 역시 전파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무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거 이상한 일이군. 그러한 신호가 들어올리는 없는데. 내가 지금 가서 체크해 보지”

「휴위쉬」교수는 부랴부랴 전파천문대로 달려갔다. 관측 차트에 나타난 신호를 분석해 보니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럼 이게 무슨 전파 일까?

지난 30여년동안 전파천문학을 연구했고 또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를 직접 관측해 왔고, 전파망원경을 제작하기도 해서 기계에도 소상히 알고 있는 「휴위쉬」 박사로서도 이게 무슨 신호인지 도저히 알길이 없었다.

지금 관측하고 있는 이 전파는 천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이기에 너무나 규칙적이다. 그렇다면 外界人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거나 地上의 레이다에서 나오는 전파일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강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규칙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점이 이상하다.

밤을 꼬박 새워가며 이 신호를 관측하고 분석해 보았으나 실마리를 찾을 길이 없다. 그는 이 사실을 일단 비밀에 붙여두기로 하고 다음날 부터 지상에서 이런

東西醫學史大綱

金斗鍾 著

醫學史는 科學史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다. 그러나 醫學史는 그 대상이 醫學이라는 극히 전문적 분야라는 학문적인 문제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우기 그것이 東洋과 西洋을 망라해서 다룰 때 어려움은 한층 더 커진다.

이런 점에서, 金斗鍾 박사의 著書의 출현은 그것이 비록 醫學史의 「教科書」로서 의외 졌다 하더라도 큰 의의가 있다.

著者는 醫學者이며 科學史家이고, 또한 書誌學의 大家로서 평생을 韓國醫學史의 연구에 바친 元老學者이다.

이 책은 西洋醫學史와 東洋醫學史를 전후편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古代로 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전편에는 西洋醫學을, 그리고 후편에는 中國·韓國·日本의 醫學을 매우 요령있게 요약하여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이런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왔고, 외국에서도 극히 보기 드문 것으로 의과대학의 醫學史 敎材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인을 위한 醫學史의 이해에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고 믿는다. 특히 東洋과 西洋의 醫學을 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다루었다는 것은 이 책이 가지는 큰 특징의 하나이다.

이 저서로써 우리는 醫學의 역사를 東洋과 西洋을 비교하면서 그 성격과 내용을 한 눈으로 읽을 수 있다. 醫學의 두 큰 흐름을 한 책 속에서 짜임새있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관심있는 독자로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探求堂刊, 크라운版 424면, 4,500원

全相運 (誠信女大교수, 科學史)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

카프라著, 李成範·金鎔貞訳

오만불손했던 서양인들이 東洋思想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서구과학이 빛은 副作用과 자체의 概念的 딜레마 때문이다. 그 결과가 어땠든 과학의 自省과 活路模索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原題…物理學의 道)은 이런 발버둥으로서 誠實한 자세와 흥분하지 않는 침착함이 호감을 준다.

물리학자인 저자는 現代物理學의 최신성과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神秘主義(인도, 중국의 철학과 종교)를 소개한 다음 둘을 비교한다. 量子論과 禪, 場과 氣, 粒子的 운동과 시바의 춤의 놀라운 類似性, 공통점이 지적된다. 古代科學과 現代科學을 함부로 비교하는 것의 위험함을 경고한 史家가 있다. 하물며 현대물리학과 동양철학의 경우에 있어서라.

그러나 현대물리학은 古典物理學에 비해 분명히 동양사상에 접근했고, 따라서 조심스런 比較研究는 유익하다. 카프라는 둘이 서로 영향을 준다거나 綜合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動的 相互作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건전하다. 科學과 신비주의는 인간정신의 相補的 표현으로서 인간에게 둘 다 없어서는 안된다고

